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양성

군산대,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 군산시, 12억5000만원 지원

지난 2월 정부의 상행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대학교가 지역맞춤형 전문인력양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진입과 군산형 일자리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3월 '지역맞춤형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시작하였고, 군산대학교 '지역맞춤형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 이경구 군산대학교 교수)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군산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주)명신을 비롯하여 에디슨모터스(주), (주)대창모터스, (주)엠펜에스코리아, (주)코스텍전기차 등 5개 사가 참여한다.

자동차융합기술원(JIAT)이 협업지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군산시를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해, 전기차 고급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전기차 원천기술개발이 진행되며,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군산대학교 대학원의 집중 교육을 통해 전기차 관련 우수 인재를 육성해 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관련 우수 인재의 적기 공급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 사업에는 전기차 관련 우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10여 명의



군산대 '지역맞춤형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이 지역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본격 가동한다.

군산대 전임교원이 참여하여, 우수 인재 양성 외에도 참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차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기업체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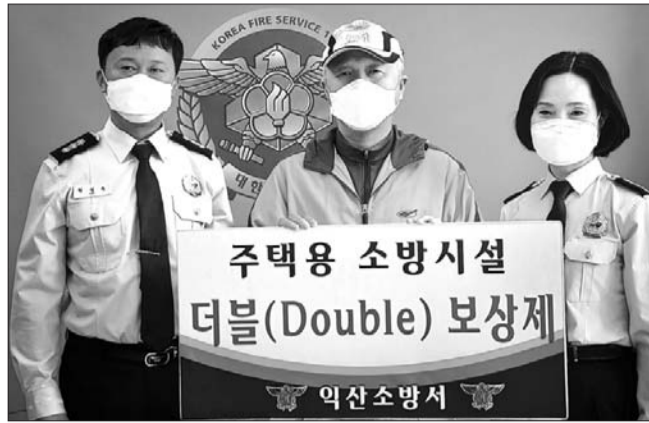
군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과 달리 사업비 전액을 군산시가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육성을 기초로 지역기업으로의 취업 및 군산 내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향후 사업 성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해 광병선 군산대 총장은 "군산에 진출한 전기차동차 및 이와 관련한 부품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군산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군산=한경봉 기자

또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업이 요구하는 전기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군산시 전기차 클러스터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군산대 미래차연구센터(센터장 : 김현철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 산하 '지역맞춤형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사업 첫해인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전기차 관련 R&D 석박사급 우수인력 50여 명을 배출하여 지역기업 내 취업을 지원하고, 10건 이상의 원천기술 특허가 확보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관련 기술 세미나 및 전국 규모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어 전기차 산업 관련 기술 교류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소방서는 25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활용하여 화재를 초기진화한 삼기면 남궁용씨(49)에게 표창장 및 소화기를 수여 했다.

익산소방서, 화재 초기소화 성공 유공자표창

올해 두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수여자 탄생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5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활용하여 화재를 초기진화한 삼기면 남궁용씨(49)에게 표창장 및 소화기를 수여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경 삼기면 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연통과열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남궁씨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3개를 활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하여 더블(double)보상제 표창장 및 소화기를 수여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 화재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한 경우,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를 한 경우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를 한 경우에는 표창까지 수여한다.

지난 한해 더블보상제로 인한 보상 건수는 전북 기준 총 20건이었고, 이로 인한 보상품목으로 소화기는 73개, 화재경보기는 5개 지급됐으며, 표창은 총 19회 수여됐다.

익산소방서는 주택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소구형양배추 품종다양화 박차

농기센터 세미나 개최

군산시가 딱거리 트렌드 변화에 맞는 품종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양배추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꼬꼬마양배추 등 작은 크기의 소구형양배추 소비시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산 소구형양배추 품종 보급을 위한 세미나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배추는 올리브, 요구르트와 함께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크고 무거워서 절단해 사용해야 하고 남은 양배추는 보관과정에서 갈변되는 등 불편함이 많아 최근에는 1회에 소비할 수 있는 소구형양배추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소구형양배추 재배 1번지인 군산에서 시농업기술센터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꼬꼬마양배추재배농가와

국내 종묘회사, 유통회사인 CJ프레시웨이 등 10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시농업기술센터의 '꼬꼬마양배추육성사업' 발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희택교수의 'CSP원에종자사업단 소구형양배추 품종보급 프로젝트', 국내 소구형양배추 종묘회사인 아시아종묘 '꼬꼬마', 조은종묘 '홀런', 더기반 '케이본', 농우바이오 '스파클' 품종 특성과 재배기술에 대한 발표와 소구형양배추 산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존 양배추시장은 이미 외국산 품종에 의해 잠악돼 있으며 소구형양배추 역시 외국산 품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소구형양배추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역별 맞춤형 재배기술정립과 기존 양배추와 별도의 규격 설정, 다양한 유통 네트워크 구축과 연중 지속적인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김제, 전주대대 이전 강력항의

비대위, 전주시청 광장서 주민 100여명과 철회 및 소음문제 해결 대규모 집회

익산·김제 전주대대 이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석중)에서는 25일 오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주민 100여명과 함께 전주대대 이전 철회 및 전주항공대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비대위, 익산·김제시민들과 뜻을 함께하고자 오택립 부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김기영 도의원, 김태열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석중 비대위원장은 "전주대대 이전 문제와 항공대대 소음문제와 관련

하여, 대통령,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장 등에게 수차례 진정서 발송,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부당성 홍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면민의 권익을 위해 생사를 걸고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택립 부시장은 "전주시의 일방적인 전주대대 이전과 익산·김제지역 항공대대 소음문제로 인해 인근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현을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해 김승수 전주시장을 직접 방문해 전주대대 이전 철회와 항공대대 소음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이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강력 항의한 바 있다.

지난 3월 2일에는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익산·김제시민 동의 없이는 국방부 토지를 전주시에 양여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폭, 사전지문등록 홍보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 여성청소년과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유치원·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 사전지문등록 및 실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비해 사전에 신체 특징(지문·사진 등)과 보호자 관련 정보를 실종자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며,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수사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미희 익산소방서장 해수호의 날 기념 챌린지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5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3.26.)을 기념하여 '다시 불러보는 서해수호 55용사 롤콜(roll call)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롤콜 챌린지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들의 이름, 추모메시지를 적고 인증사진을 남기는 챌린지로,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범국민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정부기념일로 올해 6회째를 맞는다.

전미희 서장은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자 롤콜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